

제 30회 2013년 환경주일

# 은총의 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에스겔 47:1~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02)762-6114 [www.kncc.or.kr](http://www.kncc.or.kr)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02)741-4358 [www.pck.or.kr](http://www.pck.or.kr)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봉사처환경부 02)399-4333 [www.kmc.or.kr](http://www.kmc.or.kr)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02)313-6781, 3499-7626 [www.prok.org](http://www.prok.org)  
구세군대한본영 02)6364-4004 [www.salvationarmy.or.kr](http://www.salvationarmy.or.kr)  
대한성공회 교무원 02)738-8952 [www.skh.or.kr](http://www.skh.or.kr)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본부 02)762-7529 [www.kce21.org](http://www.kce21.org)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02)720-6832 [www.kihasung.org](http://www.kihasung.org)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02)782-4868 [www.agk.or.kr](http://www.agk.or.kr)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 02)3789-7454 [www.lck.or.kr](http://www.lck.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02)711-8905 [www.greenchrist.org](http://www.greenchrist.org)

# 발간사

처음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드신 에덴동산에서는 강 하나가 흘러나와 커다란 네 줄기의 강을 이루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에는 어떤 것에도 소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생명들이 공유했고,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처음 사람은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며 세상과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첫 사람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더 이상 에덴을 볼 수 없었고, 이상하게도 서로의 치부는 잘 보였습니다. 이제 땅은 이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만을 낼 뿐이었습니다. 먹기 위해 수고해야했고 사랑의 결실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점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땅에 경계를 긋고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막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에덴을 볼 수 없는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은 계속 에덴을 파괴합니다. 누구의 소유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에덴의 모든 생명들은 그렇게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최소한의 생명만 남기신 채 모든 생명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에덴을 보지 못하고 죄에 빠져 무감각해진 사람으로 인해 못 생명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일깨워주시고, 새 세상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루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생명들이 번창합니다. 처음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2013년 환경주일자료집을 펴내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처음 세상을 꿈꾸어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으로 주신 “은총의 물,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장 이상진



## CONTENTS

발간사 .....	02
환경주일 예배문 .....	03
환경주일 캠페인 ① .....	06
환경주일 설교문 .....	07
피조물의 신음소리 .....	09
환경주일 선언문 .....	11
환경주일 캠페인 ② 및 안내 .....	12

# 제30회 2013년 환경주일 예배



## 부르심 (일어서서)

### <입례송>

종소리가 울리면 회중은 마음을 모으고 묵상합니다.

### <예배로의 부름>

인도 : 2013년 환경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회중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 <인사>

인도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중 :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인도 :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 <죄의 고백>

인도 : 주님께서 목마른 이들을 탄식하며 바라보십니다. 갈라지고 상처 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회중 : 주님, 우리는 인간의 무절제로 인해 파괴된 자연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당신이 창조하신 풍성한 자원을 낭비하고 오염시켰습

니다. 풀은 시들고 땅이 갈라지고 물고기 떼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며 생명을 괴롭혔습니다.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누리기에 충분한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고갈되는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과 폭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법을 세우기에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박한 마음을 내려 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 <자비송>

주여 주여 우리를(63장)

### <용서의 기원>

인도 :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자매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회중 :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영광송>

이 천지간 만물들아(3장)



## 말 씬(앞아서)

### 〈오늘의 기도〉 담당자 또는 다같이

- 2013년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환경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나누고 공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아끼고 보전해야 할 사명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는 반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습은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여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개발로 인해 물이 독점되고 오염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마실 물을 걱할 때에 한 쪽에서는 물이 향락의 도구로 하릴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님, 이러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환경주일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옵소서. 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작지만 커다란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각자의 결단과 실천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모든 이웃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찬송〉

다 찬양하여라(21장)

### 〈오늘의 말씀〉

독자 :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47:1-12입니다.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리어 성전 정문으로 가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중략) "너 사람이, 보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되 돌아와 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든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

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중략)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회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독자 : 시편의 137편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강가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울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슬픔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가 알지 못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부르는 노래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기쁨을 원했으나, 생명의 물이 없었기에 기뻐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당신을 잊었다면 우리가 목마르리라. 우리가 당신을 잊었다면, 우리가 물과 건강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이 마르리라. (Ecumenical Water Network의 세계 물의 날 예배 자료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독자 :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7절-40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중략)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이외의 성서본문은 공동번역을 사용하였습니다.

### 〈특송〉

### 〈말씀선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 응답

### <중보의 기도>

인도 :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여, 당신은 땅을 빚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강은 오염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목마르게 합니다.

하나님 이는 불의한 일입니다.

회중 : 주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소서.

인도 :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시여, 땅 위에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당신은 우리를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 버리시고 억압된 자의 존엄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선물인 물은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구약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는 불의한 일입니다.

회중 : 주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소서.

인도 : 물의 오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보존자시여,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여 지금도 사십 억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 설사를 앓으며 매해 이백 만 명이 물에 관련된 질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이는 불의한 일입니다.

회중 : 주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소서.

인도 :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이곳에 교제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이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당신의 치유하는 임재로서,

회중 : 주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소서.

함께 :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 <응답의 찬송>

구주여 광풍이 일어(419장)

### <헌금>

### <헌금기도>

## 파송(일어서서)

### <2013년 환경주일선언>

### <결단의 찬송>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375장)

### <파송사>

인도 :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수로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세례의 물로 이 예배로부터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들 중에 가장 적은 바짜 마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른 곳과 건조한 영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영생으로 샘솟으며 생수의 샘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에 생명의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과 은총의 영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위에 있기를 빕니다.

회중 :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지속 가능하고, 생기를 되찾게 하고, 일생을 깨끗하게 하는 생명의 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축도

\* 이 예배문은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2013년 세계 물 협력의 해를 맞이하여 열린 생태신학세미나 자료집인 「“물과 그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의 “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물사랑 교회실천 제안”을 참고하였습니다.

# 모든 피조물을 향한 교회의 물 사랑

## 인식전환

### ◆ 풍성한 자연의 물로 세례식, 세족식 갖기

세족식과 세례식은 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예식입니다. 이 두 예전을 자연 속의 흐르는 물에서 가져봅시다. 교회 주변의 강가, 냇가를 가는 일은 지역의 하천에 관심을 갖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곳에서 드러지는 세례는 인간의 파괴적인 행위에 죽음을 선언하고, 생태적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죄 씻음과 새 생명 같은 세례의 의미를 더욱 풍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세족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의 소중함과 그를 지키고 돌보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생명력 있게 흐르는 맑은 물에서 하는 세족식은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인 물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는 시간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 ◆ 연못 만들기

물고기와 수초가 있는 연못은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관광적 용도 같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 생명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도시문명은 인간만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지 기타 존재들에게는 매정한 구조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찌르레기, 딱새, 뱀새와 같은 새들이 물을 먹고 목욕을 하며, 들고양이들도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나비, 잠자리와 같은 곤충들도 연못에서 수분을 취합니다. 작은 연못을 만들므로, 여의치 않다면 큰 그릇에 맑은 물을 떠 놓음으로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를..

## 아끼기

### ◆ 빗물 활용하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인 비가 도시문명 속에서 불편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연못의 물로, 교회 마당 혹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해봅시다.

### ◆ 마당 포장하지 않기

마당을 포장하지 않으면 흙을 직접 대할 수가 있고, 물과 관

련해서는 비를 흡수, 저장합니다.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려므로 유익할 것이고 인간 이외의 생물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 오염 줄이기

### ◆ 생활하수 오염 줄이기

생활하수를 오염시키는 요인으로는 합성세제, 수은건전지, 폐식용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폐식용유를 배수구에 직접 버림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폐식용유 통을 설치해 그곳에 폐식용유를 모으도록 함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폐식용유 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에서도 폐식용유 통을 설치해 교인과 이웃주민들의 폐식용유를 모아 세탁비누를 만들어 재사용합니다.

### ◆ 물 되살리기

유용한 미생물인 EM은 물을 되살리는 데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물을 살리고 더불어 각종 청소용품, 탈취제, 세제 등을 대신해 사용함으로 위해한 화학물질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물까지 살리니 일석이조입니다. 교회에서 EM사용을 장려하고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 생각지 못한 그 밖의 물 사랑

### ◆ 물 발자국(water footprints) 줄이기

무한소비의 챗바퀴에서 벗어나는 것도 물 사랑의 커다란 실천입니다. '물 사랑'이라면 직접적으로 물을 아끼거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소비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쇼핑을 줄이고 초록가게를 통해 물건의 재활용, 재사용을 생활화함으로 물발자국을 줄입니다. (물발자국이란 사람이 직접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한 물에다 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가상수(virtual water, 눈에 보이지 않는 물)를 합친 총량을 뜻합니다. 쌀 1kg을 생산하는 데는 물 2500L가 필요하며, 우유 1L에는 1000L의 물이, 쇠고기 1kg에는 1만 5400L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초해보면 우리나라는 물 해외 의존도가 78.1%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가상수 수입국입니다.

※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2013 생태신학세미나 자료집 중 '물 사랑 교회실천 제안', 예정총회 환경선교정책협의회 자료집 중 '광동교회의 사례'를 보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에스겔 47:1-12〉

물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물 위기의 심각성은 유엔이 2013년을 물 협력의 해로 지정하는 데서도 분명해집니다. 물 위기는 인간의 생명과 생존만의 위기는 아닙니다. 물위기에는 약자에 대한 배제라는 사회적 요인과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생태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생명은 물을 전제로 합니다. 물과 생명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구 표면의 3/4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의 97.3%는 바닷물입니다. 이 물은 염분이 많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염분이 없는 물 가운데 2%는 북극과 남극, 그리고 높은 산의 빙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은 지구에 있는 물의 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물이 부족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8개국 3억 4천만 명이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이런 물 부족이 훨씬 심각해져서 세계 52개국 약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 부족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부족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의 산물입니다. 가진 자들의 독점의 산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은 온갖 편리함을 누리게 하는 당연한 삶의 요소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발자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흔히 먹는 햄버거 하나의 물 발자국 양은 2,400리터이고, 티셔츠 한 장은 4,100리터 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는 물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생활용수가 363리터인 것에 비춰보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는 물 부족 국가에서 사는 아이들에 비해 평균 40-70배나 많은 물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물 부족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두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다투고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수단과 우간다가 댐을 건설하자 이집트가 물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에는 터키에서 댐을 건설하였는데 이 때문에 시리아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샬오완댐을 건설하여 메콩 강물을 하류에서 공유하고 있는 태국과 베

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물부족, 물위기의 중심에 불평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0년 결의문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하수를 가질 권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엔 결의문 64/292).

하지만 지금 물은 사유화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은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는 한 국가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의 사유화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생태계마저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구약성서는 물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혼돈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창조를 행하셨는데, 그 혼돈의 근원에 물이 있었습니다(창1:2). 시 74편은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물은 혼돈을 나타냅니다. 제어해야 하는 위험, 죽음의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에 대한 이미지는 성서에 가득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줄기의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네 강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짜밥'입니다. 이 말은 휘감아 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물이 휘감아 도는 곳마다 운택하고 비옥함이 넘쳐납니다. 에덴의 물은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덴의 네 강 가운데 하나가 기혼강입니다.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던 샘이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은 예루살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정전신학은 예루살렘 성전과 에덴의 낙원을 동일시했습니다. 에덴의 강줄기가 주변을 적셔 생명을 가득하게 하듯,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강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낙원의 풍요로움과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혼돈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풍요로움과 평화, 생명을 가져다준

다고 말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아래 있을 때 생명과 풍요,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혼돈과 죽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또 한 가지의 흥미로운 것은, 혼돈과 죽음의 세력인 물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서는 죽음의 물이 호시탐탐 자신의 때를 노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지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혼돈의 세력을 풀어놓아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림'(창 7:11)으로 세상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노아 홍수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걸어 잠그셨기 때문에 창조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양상으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큰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상징하는 죽음과 혼돈의 물 세력에게 무너진 것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생명의 물이 혼돈의 강물에 의해 무너진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왜 무너졌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저버렸기 때문에 창조질서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성전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바닷물까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의 생명의 물이 메소포타미아의 혼돈의 물 세력에 의해 무너진 후 보여진 환상은 회복될 미래를 보여줍니다. 회복의 구체적 내용은 물입니다. 강물은 생명으로 약동하여 이르는 곳마다 무성한 나무와 물고기 떼와 생물의 번성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해라고 불리는 바다까지도 생명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환상입니까.

이와 같은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사랑과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을 실행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에 가득한 사회정의와 토지법, 약자를 배려하는 추수법 등에 관심을 가져 왔으나, 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스라엘과 무너진 성전 회복에 대한 웅장한 그림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유장한 강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물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힘껏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물이 제대로 흐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의 총량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물의 문제는 정해진 양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에서 솟아나와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탐욕이 얼마나 큰지 성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편리함, 우리 공동체의 편리함, 우리나라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그 안에 갇혀 있다면 물의 위기로 신음하는 이웃과 생태계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죽음의 물이 성전에서 솟아난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강물로 바뀌기를 소원하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자신의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성서의 물에 대한 관점과 설교의 모티브는 홍국명의 '구약성서와 물'(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2013년 세계 물 협력의 해를 맞이하여 열린 생태신학세미나 자료집인 「물과 그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

**자료 안내**

**「물과 그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

2013년 세계 물 협력의 해를 맞이하여 열린 생태신학세미나 자료집.

물 사랑을 주제로 한 예배, 설교, 묵상을 위한 자료들이 담겨 있어 '은총의 물, 모든 피조물과 함께'라는 주제로 올해 환경 주일을 지키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매문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02-722-8905, kcei@chol.com)



# 2013 피조물의 신음소리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낭비로 인해, 물과 그에 의존해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생명의 물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지구상에는 거대한 물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소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저개발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63퍼센트만이 정수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척도로 세계 인구를 다섯 단계로 나눌 때, 다섯 계층 중 가장 가난한 계층의 86퍼센트가, 상위 계층의 74퍼센트가, 그 상위 계층의 56퍼센트가 제대로 된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수인성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루에 약 18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합니다. 국내에서도 4대강 보와 댐 공사의 결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와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구적 물 순환 문제, 인구 증가와

개발 등으로 물의 오염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쓴 수돗물을 중수도를 통해 다시 사용하지 않고 하수도로 버림으로써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에 있어서 정의의 결핍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댐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국인 시리아나 요르단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상황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터키가 아타투르크 댐을 건설하면서, 시리아와 이라크는 유량이 줄어들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나라들이 물로 인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 무리한 공사로 신음하고 있는 강의 소리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주게 하소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이 보 균열, 침식과 같은 시설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녹조 현상과 물고기, 조개의 폐죽음 같은 생태적 위기 또한 겪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보 설치로 인해 물 흐름이 느려져 강물이 쉽게 얼어붙어, 강을 찾은 철새들이 집단 영양실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본류의 공사가 끝난 현재, 우리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바닥을 파고 보를 막은 하류의 변화는 강 상류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던 내성천은 하류의 준설로 인한 유속변화로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화기능도 잃어버려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인근의 주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지류 공사로 인해 3년 동안 공사장의 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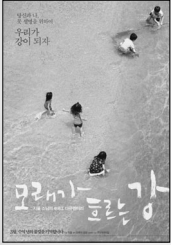
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외에도, 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여러 강줄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댐 건설은 '2012년 댐 건설장기계획'의

방향성인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먼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평창 오대천의 경우 댐을 통한 홍수 조절과 가뭄 해소 효과가 미미하고, 지리산 지역의 경우 홍수 조절용 댐이 필요 없고, 영양댐은 수혜지역인 경산과의 거리가 180km나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와 지역 민심 분열 등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무리한 개발 사업 추진은 단기적으로는 토목업을 증진시키겠지만, 강의 파괴는 물론 식수 오염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추천영상 : 영화 “모래가 흐르는 강”**

2008년부터 내성천을 따라 걸으며 무너져 가는 강의 변화를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경제발전 등 정부의 화려한 구호와는 정반대로 무너져 가고 파괴되고 있는 강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and\\_river\\_](http://blog.naver.com/sand_river_) 블로그를 통해 상영 일정 확인 및 공동체상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과 추가 건설을 멈추고, 생명 세상을 향하게 하소서.**

지난 4, 신월성 원전 1호기가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행 이후 5번의 연이은 사고 모두 같은 이유 발생했기에 이번 사고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설계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신고리 1호기, 영광 5호기, 울진 2호기, 월성 1호기 발전소가 계통 이상으로 발전을 정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월성 1호기는 지난 30년간 55건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국내 원전 23기 중 40%는 20년 이상 가동한 노 원전인데다가 고리 1호기는 이미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중이며,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1월 수명을 다한 상태입니다. 원전 설계와 노후로 인한 사고 문제 외에도, 신고리 3호기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공급할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인해 경남 밀양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765,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 설치시 전자파로 인한 암



등의 질병 발생, 지역의 공동화, 산림 파괴, 철새 생태계 교란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2주기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여전히 높은 방사성 물질과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바닷가에서 잡힌 물고기에서는 일본 식품기준의 510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었으며, 개구리, 멧돼지와 같은 먹이사슬 상위층의 동물에서는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에 사는 우리 또한 방사능 오염 식품의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만이 아니라 한반도 근처의 바다에서 잡히는 어류들도 해류를 통한 오염이나 방사능에 오염된 먹이를 먹음으로써 체내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축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안내**

**「탈핵의 이유 10가지」**

독일 쇠나우 전기조합이 작성한 ‘원전에 반대하는 100가지 이유’로부터 한국 상황에 적절한 것들을 추려내고 최근 한국의 현안들을 추가한 소책자입니다. ‘탈핵’이라는 주제에 공감은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분들께 유용합니다.

\* 구매문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02-711-8905)

2013 환경주일선언문

# 은총의 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에스겔 47:1~12)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원으로서 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물을 잘 관리하고 함께 공유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물은 이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적 자원이 아니라 인간 탐욕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자본으로 물을 독점하고 개발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과 사회의 약자들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조차 없고, 동식물은 물의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결국 자연공동체 전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되며, 물의 생명력을 제거하려는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타락입니다.

이에,

1. 우리는 물이야말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공정하게 나눠야 하며, 물은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한 '양적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위한 '영적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물의 남용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물도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물이 공공의 복지와 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4. 우리는 자연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5.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교회의 깊은 관심과 강력한 연대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합니다.
6. 우리는 물의 가치와 물의 보전을 위한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물이 공공선을 위하여 생명의 자원으로 인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전기절약으로 하나님 사랑, 지구 사랑

교회 전기 사용량 10% 줄이기



원자력발전으로 삶의 풍요와 편리를 누릴수록,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방사능으로 고통 받습니다. 또 생산된 전기가 각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은 파헤쳐지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전기 사용량을 10% 줄인다면, 수명을 다해 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는 월성과 고리 원전 1호기와 잇단 고장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전들고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여,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온 생명이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전해요 지구사랑

- 아름다운 창조동산인 지구를 지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요.
- 기후변화와 방사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조세계를 위해 기도해요.

## 기억해요 적정온도

- 실내온도를 26-28도 이상 유지하고 더위를 즐겨요.
- 옷차림은 노타이·반팔블라우스, 예배가운은 스톨로 바꾸어 쿨맵시를 뽐내요.

## 절제해요 조명사용

- 구석진 곳에 있는 덜 필요한 전등은 빼고, 낮 시간에는 햇빛으로 지내봐요.
- 십자가 조명은 일몰 후부터 열두시 까지만 밝혀요.

## 약속해요 대기전력 차단

- 개별접지 멀티탭을 보이는 곳에 두고 스위치를 꺼요.
- 타이머 멀티탭으로 새는 전기를 잡아요.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여름철 전력량 1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을 도울 자료(스티커, 안내자료집 등)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11-8905)

## 2013 환경주일 연합예배 안내

- 주제 : 은총의 물, 모든 피조물과 함께
- 일시 : 5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 연동교회(종로 5가)
- 내용 : 연합예배 및 2013 녹색교회 시상식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2014 녹색교회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www.greenchrist.org 참고

- 신청마감 : 2014년 4월 30일
- 제출처 : 녹색교회위원회(추후 공지)